

탐욕의 경제에서 희망의 경제로

-이 영 환(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제3강 공유경제의 확산과 선물경제의 부활

1. 공유경제의 의의와 전망

1.1 자본주의와 공유경제

★ 경쟁과 협력의 상보성

● 경쟁(competition)과 협력(cooperation)은 경제활동 과정에서 관찰할 수 있는 인간의 두 가지 상반된 측면으로서 진화 과정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 개체의 생존을 위해 인간은 한편으로는 치열하게 경쟁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 외부의 적으로부터 종(種)을 보존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했다. 이와 같이 경쟁과 협력은 인간의 본성에 각인된 두 개의 상반된 속성이다.

● 자본주의는 경쟁에 초점을 맞춘 경제 시스템인 반면, 공유경제는 협력에 비중을 둔 경제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자본주의에서는 물질 자본(자금)이 중요한 반면, 공유경제에서는 사회적 자본(신뢰)가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 이 두 가지 요소들 간의 상호 조화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향후 인류 사회는 자본주의적 요소와 공유경제적 요소의 적절한 조화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사항: 인터넷 시대와 협력 의식의 진화>

20세기 초 인터넷 시대가 도래한 이후 인간의 의식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한 마디로 사람들은 비로소 서로 연결되어 있음(connectedness)을 의식하기 시작했으며 지금은 각종 소셜 미디어를 비롯한 여러 채널을 통해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양의 되먹임(positive feedback)이 크게 강화되어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증가했다. 향후 인류 사회가 어떻게 변모해갈지에 대해서는 복잡계 이론(complex theory)을 적용해 분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인다. 이 말은 곧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무엇인가? 개인적으로는 협력 내지 협동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즉 지금까지의 무한경쟁 패러다임이 초래한 글로벌 차원의 부작용을 억제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이끄는 원동력은 협력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 인간 개개인은 미약한 존재지만 효과적인 방법으로 협력한다면 어떤 난제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의 창출해 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창발적 성질(emergent property)의 본질이다. 이런 의미에서 온라인상에 발생하는 대규모 협력 현상의 연구로 잘 알려진 하버드대 요차이 벤클러(Yochai Benkler)교수의 『펭귄과 리바이어던』(2013)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증 연구를 바탕으로 협력이 어떻게 이기심을 극복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임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그 가운데 몇 구절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20세기 마지막 10년 동안 일어난 일련의 변화는 인간은 이기적이라는 이론으로부터 근본적인 이탈을 야기했다. 우선 기업들이 달라졌다……인터넷에 등장한 동료 생산(peer production)이 불과 5년, 10년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협력 문화를 탄생시켰다(19쪽).

● 인간 사회는 기술과 비즈니스, 이데올로기와 과학 분야에서 대붕괴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2008년 경제위기를 겪은 우리는 이기심에 기초해 세워진 경제 및 금융 시스템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 애쓰고 있다 (29쪽).

- 이기심과 협력은 서로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 반대다……협력과 이익은 공존할 수 있다. 이 이중성을 받아들이는 것, 그 바탕 위에 사회를 재구성하는 것, 그리고 개인적, 사회적 목표를 위해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일은 가능한 동시에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34쪽).
- 평판과 사회적 자본이 협력 시스템이 작동하는 유일한 원동력은 결코 아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로 학습이 있다. 많은 증거에 따르면, 어떤 상황에서든 인간의 행동은 자신이 목격한 주변 사람들의 행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80쪽).
- 사람들이 탁월하게 일하거나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시스템을 수립하고자 한다면, 단순히 보상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시스템이 얼마나 공평한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137쪽).
- 친사회적 규범이나 협력적 규범은 한 번 만들어지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스스로 강화된다. 그리하여 시스템은 점차 활기를 얻는다. 사람들은 협력을 자주 연습할수록 협력의 장점을 더 믿게 된다(156쪽).
- 도요타나 사우스웨스트 항공사 같은 기업들이 크게 성공했다는 사실은 어떤 기업이든 엄격한 위계구조나 최고경영자의 천문학적 연봉이 아니라 실적 자체가 본질적으로 보람을 느끼게 만드는 사회적이고 협력적이고 포괄적인 일터를 조성할 때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가장 명백한 증거다 (200쪽).

★ 공유경제의 의의

- 최근 공유경제(sharing economy)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아직 그 의미가 명확하게 정의되지는 않았다. 공유경제(sharing economy)는 달리 협력적 공유사회(collaborative commons), 망(網)경제(mesh economy), 협력적 경제 (collaborative economy), 협력적 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 등으로 불리는데, 인적·물적 자원의 공유를 바탕으로 형성된 사회·경제적 시스템을 말한다.

- 공유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경제 시스템으로서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물론 공유경제도 시장경제의 일부임에는 변함이 없다.

1)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수직적·통합적인 조직을 갖춘 가운데 규모의 경제를 추구한다면, 공유경제는 수평적·분산적 조직을 추구하며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2)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은 주식회사의 형태로서 이윤을 목적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자본을 유치해 일반적으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가운데 운영된다. 반면 공유경제에서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중심인 가운데 구성원들이 협력을 바탕으로 작동한다.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기존의 자본주의 패러다임에 반하는 협력적 공유사회를 추진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봉건적 공유사회가 토지의 공유에 기반을 두었다면 새롭게 태동하는 협력적 공유사회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과 에너지 체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

→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은 『한계비용 제로 사회』에서 향후 사물인터넷의 발달이 공유경제의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참고 사항: 공유경제의 특성에 관하여〉

리프킨은 봉건적 공유사회에 대응하는 용어로 협력적 공유사회를 사용한다. 이것은 사물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스마트 인프라를 기반으로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사회적 자본을 축적해가는 새로운 경제 모델을 의미한다. 협력적 공유사회에 대한 그의 입장은 다음과 같은 구절에 잘 표현되어 있다.

1) 협력적 공유사회는 이미 우리가 경제생활을 조직하는 방식에 변혁을 가하며 소득 격차를 극적으로 축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글로벌 경제의 민주화를 촉진하는 한편 환경 면에서도 보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있다.

2) 자본주의 기업과 공유경제의 조직인 사회적 기업 또는 협동조합에서 이윤이 갖는 의미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공유경제와 자본주의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핵심이다. 그런데 이 경우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면서도 공유경제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본주의적 기업들(e-bay, Google, Facebook, Airbnb, Uber 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 이 문제는 공유경제의 성격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공유경제를 전통적 공유경제(품앗이, 공동육아, 공동교육 등), 상업적 공유경제(Uber, Airbnb 등) 및 협력적 공유경제(사물인터넷에 기반을 둔 공유경제 개념)로 구분할 때, 상업적 공유경제는 여전히 이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왜냐하면 여기에 속한 기업들은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차두원·진영현의 『초연결시대, 공유경제와 사물인터넷의 미래』(2015)를 참조하라.

1.2 사물인터넷의 활성화: 제로 한계비용

★ 사물인터넷: 스마트 인프라 혁명

● 사물인터넷은 모든 기계, 사업체, 주택, 차량 등의 사물을 지능형 네트워크에 연결한 것으로서 커뮤니케이션 인터넷과 에너지 인터넷 그리고 물류 인터넷으로 구성된다.

→ 사물인터넷 운영 체계의 핵심은 커뮤니케이션 인터넷과 에너지 인터넷 물류 인터넷을 하나의 화합적 운영 플랫폼(platform)에 통합하는 것이다.

<참고 사항: 사물인터넷에 대한 평가>

1) 사물인터넷은 떠오르는 협력적 공유사회의 기술적 '소울 메이트(soul mate)' 이다. 이 새로운 인프라는 전적으로 분산형으로 구성된다……사물인터넷의 운용 논리는 수평적 대중 협업과 보편적 접속, 비배제성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사물인터넷은 수십억 의 사람들이 피어투피어(peer-to-peer) 소셜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협력적 공유사회의 삶을 구성하는 새로운 관행과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공동 창출케 할 것이다(리프킨, 37쪽).

→ 2007년 1,000만 개의 센서가 모든 종류의 장치와 사물인터넷을 연결했다. 2013년에는 그 숫자가 35억 개를 넘었고, 2030년이면 100조개의 센서가 사물인터넷에 연결될 것으로 추정된다.

2) 사물인터넷의 막강한 영향력에 대한 평가는 다음 표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8월 MIT Technology Review에서는 사물인터넷에 기반한 네트워크 경제를 의심할 수 없는 차세대 경제혁명으로 정의하고, 머지않은 미래에 네트워크 경제는 비즈니스와 인류에 전례 없는 엄청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단정지었다 (차두원·진영현, 149쪽).

● 사물인터넷은 재화나 서비스 생산의 한계비용을 극단적으로 낮추는 성과를 이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효율을 중시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본질적인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다.

→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기업은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원가절감을 통해 한계비용을 낮추어야 한다. 이런 경주에서 승자가 된다는 것은 곧 한계비용을 매우 낮추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자본주의의 동력인 이윤이 고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사항: 사물인터넷의 파괴력>

1)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의 사실상 거의 모든 측면이 센서와 소프트웨어를 통해 사물인터넷에 연결돼

모든 주체들에게 실시간으로 빅데이터를 공급할 것이다. 이후 고급 분석을 거쳐 예측 알고리즘으로 전환된 빅데이터는 다시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화 시스템에 입력되어 열역학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극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경제 전반에 걸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유통 모든 영역에서 한계비용을 제로에 가깝게 떨어뜨릴 것이다(리프킨, 25쪽).

2) 음악산업과 출판업계, 인쇄 및 전자매체, 엔터테인먼트산업의 대부분을 좌지우지하던 거대 독점기업들은 이미 수평 통합형 규모의 경제 네트워크 내에서 이루어지는 또래 생산(peer production)의 충격과 공포를 직접 경험하고 있다. 사물인터넷이 성장해 나가면서 우리는 에너지와 발전, 통신, 제조, 서비스 등 분야에서 군림하던 거대 기업들의 궤멸을 차례차례 목도할 것이다(리프킨, 109쪽).

- 사물인터넷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은 상상을 초월하는데, 몇 가지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사례 1〉 1900년~1980년 사이 미국 내 총 에너지 효율(실질적인 유효 에너지의 비율)은 2.48%에서 12.3%로 올랐다. 그리고 1990년 후반 2차 산업혁명 인프라 구축이 완성되었던 시점에서는 13%로 달보상상태에 있었다. 하지만 3차 산업혁명 인프라로 전환함으로써 향후 40년 안에 에너지 효율을 40%까지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 극적인 생산성 향상을 달성할 수 있다.

〈사례 2〉 미국 시스코(Cisco)사의 추정에 의하면 2022년까지 사물인터넷이 비용 절감과 수익의 측면에서 14조 4,000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 한다(미국의 GDP가 약 17조 달러임을 감안하면 대단한 수치다).

〈사례 3〉 의료계는 사물인터넷으로 생산성을 증진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분야다. 2011년 기준 시장규모가 7조 1,000억 달러로 세계 GDP의 10%를 차지하고 있지만 시스템의 비효율로 매년 총 지출의 10%, 즉 약 7,000억 달러가 낭비되고 있다. 그 외 항공 분야에서도 막대한 비용을 절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례 4〉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생산성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업계 분석가들은 태양열 및 소형 풍력 발전기술이 15년 안에 휴대전화나 노트북 컴퓨터만큼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즉, 초기 설치 비용이 점점 저렴해짐에 따라 태양열과 풍력 에너지 한 단위를 추가 생산하는 비용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질 것이다.

〈참고 사항: 에너지 인터넷의 미래〉

인터넷 기술과 재생에너지가 융합해서 에너지 인터넷을 창출하기 시작했다. 에너지 인터넷은 사회에서 동력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방식에 엄청난 변화를 안겨 줄 것이다. 우리가 지금 정보를 생성하고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것처럼, 다가올 시대에는 수억 명이 집이나 사무실, 공장에서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에너지 인터넷을 통해 녹색 전기를 서로 공유할 것이다.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이 녹색 에너지를 관리하게 되면, 지구상 모든 인류는 말 그대로 자체 동력원이 된다(리프킨, 133쪽).

★ 제로 한계비용의 진실

- 사물인터넷의 활성화는 곧 스마트 인프라 혁명을 의미하며, 이것은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상승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나아가 생산성의 비약적인 상승은 여러 분야에서 한계비용을 거의 제로 수준으로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 경쟁적인 시장에서 가격은 한계비용과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이것이 표준적인 경제이론의 핵심 메시지다. 그런데 한계비용 거의 제로로 수렴한다면 가격 또한 제로로 수렴해야 한다. 그러면 어떤 기업도 생존할 수 없다.

※ 이 부분이 리프킨의 파격적인 주장의 핵심이다. 제로 한계비용은 기존의 거대 기업들의 기반을

붕괴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협력적 공유사회에 편입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 반대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 그렇지만 거대 자본의 필요한 분야, 예를 들면 자동차산업, 반도체산업 등은 한계비용이 거의 제로 수준으로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그의 주장이 적용되는 분야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을 시사한다.

→ 단, 에너지 분야에서 한계비용이 거의 제로 수준으로 하락한다는 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변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리프킨은 특히 이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 같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에너지는 산업혁명을 초래할 만큼 중요한 요소다.

<참고 사항: 교육의 한계비용 전망>

개방형 온라인 강좌는 교육의 한계비용을 거의 제로 수준으로 낮추고 있다.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의 제바스티안 스런 교수가 2011년 온라인으로 인공지능에 관한 무료강좌를 제공하면서 이 분야에서의 혁명이 시작되었다. 이에 대해 리프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이 온라인 상으로 거의 무료인 데다가 제로 수준의 한계비용으로 제공된다면, 공인된 대학이 아주 적은 수수료만 받으며, 개방형 온라인 강좌를 이수한 학생들의 학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리프킨, 194쪽)."

1.3. 사물인터넷과 공유경제의 미래

★ 노동시장의 변화: 사라져 가는 노동자

● 기존의 자본주의 시스템 내에서도 일자리는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 미시간 대학교 경제학 교수 마크 페리의 추정에 의하면 2012년 미국의 실질 GDP가 2007년보다 2,2% 더 증가했음에도 노동자의 수는 384만 명이 줄어들었다.

예) 미국의 경우 1982년과 2002년 사이 철강 생산량은 7,500만 톤에서 1억 2,000만 톤으로 증가했지만 노동자의 수는 28만 9,000명에서 7만 4,000명으로 감소했다.

● 제조업 분야에서 현재 속도로 기술 대체(노동 절약적인 기술 변화를 말한다)가 계속 된다면 2003년 1억 6,300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던 산업이 2040년이면 단지 몇 백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공산이 크다. 공장의 대량 생산 노동이 세계적으로 종언을 고하는 셈이다.

※ 무인차량이 도입되면 이런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무인차량이 스마트 도로 위를 운행하며 인간이 운전하는 차량을 대체한다는 전망은 곧 실현될 것이다. 미국에서만 현재 270만 명이 넘는 트럭 운전자가 있다. 2040년이면 제로 수준의 노동 한계비용으로 운행되는 무인 차량이 미국 내 트럭 운전자의 상당수를 실업자로 만들 것이다.

● 지식 노동자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진보한 인공지능은 인해 전문 지식 분야 전반에서 효율성과 생산성이 증가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고 있다.

예) 이디스카버리(eDiscovery)는 수백만 건의 법률문서를 살살이 조사해 법무 및 소송 관련 행동 유형과 사고방식 및 개념 등을 찾아주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서 유능한 변호사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마칠 수 있다.

→ 이와 같이 인간 노동에 대한 수요가 거의 모든 분야에서 계속 줄어든다면 자본주의 시스템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즉, 소유주와 노동자, 판매자와 소비자로 분류하는 낡은 패러다임이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다.

★ 스마트 경제의 확대: 공유의 비극에서 공유의 희극으로

- 사물인터넷 인프라의 구축 자금은 대부분 부유한 자본가들보다는 수억 명에 달하는 납세자들과 소비자들이 부담하고 있다. 이것은 곧 정부가 인프라 구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인터넷 자체의 탄생 및 발달 과정이 그러했다.

→ 분산형 재생에너지의 진보를 촉진한 주된 도구는 발전 차액 지원제도다. 이것은 일정 기간 동안 얼리어답터들이 생산한 재생에너지(풍력, 태양열, 지열 등)를 다른 에너지의 시장가격보다 높게 가격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 리프킨에 의하면 발전 차액 지원제도가 재생에너지를 온라인으로 옮겨 놓은 강력한 도구임이 입증되었다. 전 세계 풍력 에너지의 거의 2/3, 태양광 발전 용량의 87%가 발전 차액 지원제도에 의해 생산되고 있다.

- 프로슈머(prosumer)의 탄생, 즉 에너지 소비자에서 에너지 프로슈머로의 전환은 전기를 발전하고 사용하는 방식이 획기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른바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에 도달했다.

→ 과거 거대 에너지 기업에 일방적으로 의존했던 상황에서 탈피해 수백만 명의 프로슈머들이 발전 차액 지원제도를 활용해 나름대로 재생에너지 혁명을 주도하고 있다. 이것은 에너지 산업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예고한다.

- 사물인터넷은 희소성의 경제를 풍요의 경제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이것은 희소성에 근거한 경제이론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을 예고한다.

예) 정보와 재생에너지, 3D프린팅, 온라인 대학과정 등이 그러하듯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방송 스펙트럼을 희소 자원에서 풍요의 자원으로 바꾸고 있다.

→ 이것은 시장과 정부를 뛰어넘어 일반인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 공유의 비극에서 공유의 희극으로 전환이 가능해졌다.

인터넷의 발달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더욱 즐거워지는, 즉 각자 부여하는 가치가 더욱 커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공유의 비극에 전적으로 반하는 현상이다. 과거와는 달리 수평적으로 규모를 확대하는 분산형 피어투피어 방식의 생산 및 유통에는 공유사회의 원리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

→ 노스웨스턴 대학교 법학 교수인 케럴 로즈는 생태학자 게릿 하딘(Garrett Hardin)이 1968년 「Science」지에 발표한 “공유의 비극”과 대비해, 이런 현상을 “공유의 희극”이라고 명했다.

<참고 사항: 공유의 비극에 대한 논평>

- 1) 공유의 비극의 문제는 거버넌스(governance), 즉 지배구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게릿 하딘은 거버넌스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 2) 200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인디아나 대학교의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은 공유사회가 성공적으로 운용된 다양한 사례에서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그녀는 무임승차로 모든 공유물은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하딘의 연구를 반박한 후, 공유자원(목초지, 관개시설, 어장 등)을 관리하는 데 있어 개인은 종종 사리사욕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더 앞세운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녀에 의하면 최악의 상황에서는 '사회적 자본'이 공유사회를 지탱하는 중심 자산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이런 그녀의 연구 결과는 『공유의 비극을 넘어』(2010)에 잘 요약되어 있다.
- 3) 경제학의 관점에서 인간을 단지 개인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존재로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진화생물학이나 신경인지과학의 연구 결과는 경제활동에 대한 공유사회적 접근이 인간의 생물적 본능에 더 부합한다는 것이 리프킨의 입장이다.

★ 공유경제의 미래와 의식의 진화

- 공유사회와 생물권(biosphere) 개념의 등장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협력적 공유사회가 공존하겠지만 어느 것이 궁극적으로 지배적인 질서가 될지는 사회가 구축하는 인프라의 성격에 달려있다. 즉, 커뮤니케이션, 에너지 그리고 물류 인터넷을 결합하는 사회적 인프라가 어떻게 구축되는가에 따라 지배적인 경제 질서의 특징이 결정될 것이다.
※ 이와 관련해서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들의 시장지배력이 커지는 것에 비례해 협력적 공유사회를 확산시키는데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상당한 시장지배력을 확보한 이들 기업들이 공유사회의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 인터넷 역시 기존 에너지 대기업들의 가공할 권력으로 인해 그 영향력을 확산하는 과정이 상당히 지연될 수 있다.
※ 현재의 중앙집권적이고 독점적인 폐쇄형 스마트 그리드를 개방적이고 분산된 스마트 그리드로 전환하는 작업이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미국에서 900개의 비영리 전기 협동조합이 47개 주에서 400만 킬로가 넘는 전선을 통해 4,200만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현실은 고무적이다. 이들은 미국 내 송전선의 42%를 관리한다.
-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공유사회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모델은 수많은 참가자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서로 협력하는 활동을 관리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
※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동차는 궁극적인 인클로저의 상징이다. 그런데 오늘날 차량 공유가 많은 사람들에게서 지지를 받고 있다. 2차 산업혁명 기간 내내 시장의 꽃이었던 자가용은 분산적이고 수평적으로 확대되는 차량 공유라는 기회의 희생물로 전락하고 있다. 이것은 의외로 커다란 변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개인적인 이동수단이 소유에서 접근으로 전환한 것과 향후 무인자동차의 도입은 시장에서 공유사회로의 이전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사항: 공유경제의 정착 사례>

- 1)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릴레이라이즈(RelayRides)나 우버(Uber)같은 온라인 기업들의 등장. 최근 우버의 시장가치가 400억 달러를 넘었다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참고로 최근 우리나라 현대차의 시장가치(시가총액)는 400억 달러에 못 미치고 있다.
- 2) 에어비앤비(Airbnb), 홈어웨이(HomeAway)같이 주택 공유를 촉진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사이트들의

성장도 주목할 만하다. 세계에서 가장 큰 호텔 체인인 힐튼 호텔 그룹의 시가총액이 200억 달러 정도인 데, 에어비앤비의 시가총액은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

● 협력적 공유사회가 어떤 분야에서든 경제활동의 10~30%를 점유하게 되면, 현재 지배적인 수직·통합형 글로벌 기업들은 급격히 소멸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것은 곧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공유경제가 기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 피어투피어 사회적 대출의 다른 형태인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의 부상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 이것은 유럽에서 번성하고 있는 각종 금융 협동조합과 함께 기존의 금융자본주의에 변화를 초래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 리프킨은 기존의 통화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통화의 등장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면 비트코인(Bitcoin)이 대표적이다. 그렇지만 공유경제에 적합한 새로운 통화시스템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리프킨은 너무 앞서 갔다고 생각한다.

● 공유경제는 향후 지속 가능한 풍요의 원천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계비용이 제로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희소성이 풍요로 대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와 관련해 리프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 생활의 기본적인 편의시설과 안정성을 갖출 수 있을 정도의 소득수준에 도달하면, 사람들의 행복 수준은 정체하기 시작한다. 또한 소득 불평등도 행복 수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 물질주의가 해로운 이유는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기본적인 욕구인 공감 본성을 앗아 가기 때문이다.

*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를 경험한 후 사람들의 가치관에 달라지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타인에 대한 공감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 호모 엠파티쿠스(Homo empathicus), 즉 공감하는 인간의 시대가 도래할 것인가?

→ 리프킨은 사물인터넷에 기반을 둔 커뮤니케이션·에너지 모체는 광범위한 시공간 영역으로 공감적 욕구를 확대하고 보다 많은 인간을 상호의존적인 사회로 볼로 모음으로써 인간의 의식에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한다.

<참고 사항: 경제 시스템과 인간 의식의 진화>

리프킨은 공유경제의 도래와 함께 나타날 인간 의식의 진화를 역사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 수렵·채집사회 → 인간은 "신화 의식"을 보유했으며, 공감적 욕구는 혈족과 부족 관계까지 확대되었다.

* 수리(水利) 문명에 기반한 농경사회 → 인간은 "신학적 의식"으로 옮겨갔으며, 종교적 동질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가상 가족으로 공감적 욕구가 확대되었다.

* 산업혁명 이후 19세기의 사회 → 인간은 "이념적 의식"으로 옮겨갔으며,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에너지 모체 덕분에 민족국가의 차원에서 공감이 형성되었다.

* 20세기 대중 소비자사회 → 인간에게 "심리적 의식"으로 다시 한번 인지상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로 인해 정치적 경계선을 넘어 결사(結社)적 유대를 포괄할 정도로 공감적 욕구가 확산되었다.

* 공유사회의 도래 → 인간에게 다시 한번 도약이 일어나 "생물권 의식"으로의 전환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즉, 인류 전체를 가족으로 포함하는 공감의 확장이 가능해질 것이다. 사물인터넷이 이를 가능하게 할 기술적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다.

1.4 공유경제의 핵심 조직: 협동조합

★ 협동조합의 의의와 발달 과정

①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 협동조합에 관해서는 국제협동조합연합회(ICA)의 다음과 같은 정의가 가장 적절하다.

"협동조합이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을 통해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자율적 연합(association)이다."

→ 이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공동소유, 민주적 운영, 공동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의 충족, 자율적 연합이 협동조합의 고유한 특성이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분명히 자본주의적 기업과는 다르다.

- 협동조합은 두 얼굴의 야누스다. 시장 안에서 작동한다는 점에서는 경제적 차원의 기업인 한편, 경제외적인 목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사회적 단체다.

→ 시장경제 안에서 자본주의적 기업들과 경쟁하는 다른 형태의 기업 조직인 동시에 조합원들 간의 협력을 통해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조직인 셈이다. 이런 의미에서 협동조합은 '1원 1표'에 근거한 자본주의와 '1인 1표'에 근거한 민주주의 간의 근원적 모순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

- 협동조합의 7대 원칙(1995년 ICA 맨체스터 총회에서 제정)

-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가입
-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
-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 4) 자율과 독립
- 5) 교육, 훈련 및 홍보
- 6) 협동조합 간의 협력
- 7) 지역사회 기여

- 협동조합 기업과 자본주의 기업의 주요 차이

- 1) 기본적으로 협동조합 기업은 노동이 자본을 고용하는 반면, 자본주의 기업은 자본이 노동을 고용한다.
- 2) 협동조합 조합원은 분배 불가한 내부유보금을 나눠 가질 수 없으며, 조합 청산 시 자본이득을 얻을 수 없다.
- 3) 조합의 이용권은 양도, 유통될 수 없고 조합원으로 남아있을 때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4) 협동조합은 출자금 규모와는 상관없이 모든 조합원은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다. 이런 면에서 협동조합은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 5) 자본주의 기업과는 달리 협동조합에서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점은 시장경제의 효율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 협동조합의 존립 근거

- 1)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가 불가피한 현실에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협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
※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소수의 재벌(기업집단)에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민주주의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협동조합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 2) 협동조합은 인간의 적극적인 자유, 즉 '무엇을 할 자유(freedom to)'를 성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협동조합은 노동을 단순한 생산요소가 아니라 자아실현의 기회로 여기는 선진적인 기업 형태다.
- 3) 협동조합은 공감(sympathy)과 협력(cooperation)이라는, 이기심 외 인간의 다른 중요한 측면을 고취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조직이다.
→ 이를 바탕으로 신뢰, 공정성, 호혜성, 자유에 대한 사랑 같은 사회적 자본을 축적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 4) 협동조합은 금융자본의 지배와 슈퍼경영자의 독세로 인한 불평등의 악화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5) 협동조합은 저성장 시대 및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② 협동조합의 발달사

- 2009년 기준 ICA에는 91개국의 227개 협동조합연합체가 참여하고 있다. 중국의 1억 8,000만 명과 인도의 2억 1,000만 명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조합원이 8억 명이고 고용 인력만도 1억 명에 이른다.
- 유럽만 보면 37개국 26만 7,000개의 조합에서 1억 6,300만 명의 조합원을 두고 있으며 550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
-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특히 신용협동조합이 발달했는데, 크레디 아그리콜(Credit Agricole)이 대표적이다. 1988년 정부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났고 지주회사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다.
- 핀란드: 다른 스칸디나비아 국가들보다 앞선, 세계 최고의 협동조합 국가로서 19세기 후반 농업 분야에서 싹을 틔우기 시작했으며 1899년 390개의 농민협동조합이 모여 핀란드 협동조합연맹 펠로보(Pellervo)를 창설했다.

- 스위스: 스위스 최초의 대규모 협동조합 연합인 스위스 소비자협동조합 연맹이 설립된 것은 1890년이었지만 협동조합 운동이 체계를 갖춘 것은 2차대전 이후였다. 소비자 협동조합 코프(Coop)와 미그로(Migro)가 유명하다.
- 독일: 강력한 신용협동조합 운동을 바탕으로 1차대전 이전까지 크게 성장했다. 1913년에 독일에는 600만 조합원과 3만 3,000개의 협동조합이 있었다. 그 후 나치정부하에서 쇠퇴했다가 다시 부활했다. 독일 협동조합은행은 1,300개가 넘고 1,500만 조합원을 거느리고 있다.
- 스페인: 전국적인 협동조합 연맹은 1928년에 설립되었는데 프랑코 독재에 의해 조직이 무너졌다. 지금은 전국적인 조직은 아니지만 몬드라곤 (Mondragon)이라는 특별한 협동조합이 스페인을 대표한다. 몬드라곤은 8만여 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데, 이 중 80%가 조합원이다.
- 미국: 2차대전 직후에는 700만 조합원을 가진 농민협동조합이 가장 강력했지만 농업의 위상이 축소되면서 동반 위축되었다. 그렇지만 아직도 미국 농민협동조합은 400만의 조합원을 보유하며, 미국 농업생산의 3분의 1을 담당하고 있다. 그 외 신용협동조합과 전기협동조합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 대표적인 협동조합의 현황

- 이탈리아의 콤피탈리아: 이탈리아 북동부 4개 주 소비자협동조합의 연합체로서 대형 매장 15개와 소형매장 135개를 갖고 있다. 연 매출은 대략 19억 2,000만 유로, 원화로 2조 8,000억 원 가량 된다. 이탈리아 국민의 60%가 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라 할 정도로 대중적인 기반이 견고하다.
- 덴마크의 대니쉬크라운: 글로벌 축산 협동조합으로서 연간 매출액은 원화로 9조 원이며 돈육 생산량은 세계 11위지만, 돈육 수출은 세계 1위다. 매출의 90% 이상이 139개 나라에 수출하는 데서 발생한다.
- 덴마크의 알라푸즈: 유가공 협동조합으로서 2011년 매출 7조 원으로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큰 유가공업체다. 2000년에 스웨덴 협동조합과 합병해서 지금의 알라푸즈가 됐다.
- 뉴질랜드의 폰테라: 낙농업 협동조합으로서 뉴질랜드 전체 우유의 92% 이상을 생산해 전 세계 140개 나라로 수출한다. 국내외의 직원만 1만 6,000명이 넘으며 연 매출은 110억 달러를 상회한다. 전 세계 수출용 유제품의 30% 이상을 차지하면서 압도적인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 스위스의 미그로: 코프 스위스(Coop Swiss)와 함께 스위스의 대표적인 소비자협동조합으로서 8만 명의 직원이 일한다. 지역사회의 교육과 문화에 재투자하며 조합원들의 복지를 최우선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 스페인의 몬드라곤: 세계 최대의 노동자협동조합으로서 1956년 스페인 바스크 지역의 몬드라곤 마을에서 시작해 반세기 만에 스페인에서 매출 9위, 고용 3위의 기업집단으로 성장했다. 매출 규모는 연 140억 유로(약 20조 원)에 이른다.
- 네덜란드의 라보방크: 협동조합 은행으로 조합원 180만 명, 48개국의 고객 1,000만 명, 직원 5만 8,700명, 2010년말 기준 자산 6,5525억 유로(약 959조 원), 네덜란드 3대 금융기관이자 세계 25위

은행이다.

- **한국의 한살림과 아이쿱:** 생활협동조합으로서 전체 조합원 수는 2008년 32만 명에서 2011년 63만 명으로 급증했다. 연 매출은 아이쿱이 2008년 1,301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한살림이 1,326억 원에서 2,200억 원으로 늘었다.

※그 외 전세계의 주요 협동조합들의 현황에 관해서는 김현대 외의 『협동조합, 참 좋다』(2012)를 참조하라.

★ 협동조합의 미래 전망

- 협동조합은 향후 공유경제의 핵심적인 조직 형태로 부상할 것이다. 왜냐하면 협동조합의 운용 무대는 시장이 아니라 공유사회이기 때문이다.

<참고 사항: 협동조합의 미래에 대한 단상(斷想)>

1) 최근 전 세계적으로 10억이 넘는 사람들이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1억이 넘는 사람들이 협동조합에 고용되어 있다. 이는 다국적기업에 고용된 인원보다 20% 많은 수치다.

2) 협동조합의 본질과 미래 전망에 대한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의 스테파노 자마니 교수의 다음 지적은 흥미할 가치가 있다:

"협동조합 기업의 지배구조가 난해한 것은 시장 코드(market code)와 사회적 코드(social code)라는 이중의 코드로 정체성을 이루기 때문이다.....한 가지 코드가 희생 당하는 어느 극단의 상황이 벌어지면 결국 협동조합의 본성이 사라지고 정체성을 잃게 되는 것이다. 두 개의 코드가 역동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전략적 보완성을 확보해 내는 것이 바로 21세기 협동조합 운동이 직면한 엄중한 도전이다."

3) 미국과 같이 금융자본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도 협동조합은 무시할 수 없는 공유경제를 형성하고 있다. 톰 하트만(Thom Hartman)은 『2016년 미국 몰락』(2014)에서 경제 왕당파에 포획되어 몰락에서 위기에 처한 미국을 구하기 위한 경제민주화의 핵심으로 협동조합의 활약을 들고 있다. 또한 2000년대 초 경제위기에 빠진 아르헨티나를 구한 것도 협동조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협동조합은 글로벌 경제위기를 구할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 사물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향후 협동조합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분야에서 한계비용이 거의 제로 수준으로 하락하면 민간 기업들은 생존하기 어렵지만 협동조합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협동조합이 이런 사회에서 작동하는 주력 사업 모델이 될 수 있다.

2. 선물경제의 의의와 현대적 부활

2.1 선물경제란 무엇인가?

★ 선물경제의 의의와 기원

- 선물경제(gift economy)는 과거 수렵·채집 시대에 일부 지역에서 물물교환경제(barter economy)와 같이 등가교환원리와는 다른 원리에 입각해 상품을 순환시키던 경제 시스템을 현대적 관점에서 재정립한 용어다.

※ 현재 글로벌 경제를 지배하는 화폐경제 시스템에 대한 대안으로 선물경제의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제시한 사람이 찰스 아이젠스타인(Charles Eisenstein)이다. 그는 『신성한 경제학의 시대』에서 "신성한 경제=선물경제" 라는 관점에서 인류의 의식 전환을 전제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다. 이런 논의를 체계적으로 전개한 것은 그가 최초라고 생각한다. 이 점이 중요하다.

- 이 용어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프랑스의 사회학자이자 인류학자였던 마르셀 모스(Marcel Mauss, 1872~1950년)의 선구적인 연구가 있다. 그는 인류학적 관점에서 북아메리카 인디언, 폴리네시아와 멜라네시아 부족들이 선물을 주고받는 풍습을 통해 사회가 유지되는 메커니즘을 밝히려 했다.

※ 포틀래치와 쿨라

- 1) 포틀래치: 이것은 '식사를 제공한다', '소비한다' 는 뜻이다. 출생, 성년식, 결혼식, 장례식과 같은 통과의례나 추장 취임식, 집들이 같은 의식을 통해 손님들에게 온갖 음식과 선물을 제공하는 관습을 말한다. 여기에는 주는 의무, 받는 의무, 그리고 답례해야 할 할 의미가 포함된다(과거 우리사회의 관혼상제 풍습이 연상된다).
- 2) 쿨라: '원(circle)' 이라는 뜻으로 포틀래치의 일종이다. 태평양의 군도(群島)에 사는 부족들 간에는 쿨라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들 사회에서는 '음왈리' 라는 조개껍질 팔찌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술라바' 라는 자개 목걸이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돌린다. 즉 원을 그리면서 선물을 교환한다. 따라서 받은 사람(부족)이 준 사람(부족)이 아니라 제3의 사람(부족)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풍습이다.

★ 선물경제의 핵심 요소

최근 선물경제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대표적인 인물은 찰스 아이젠스타인이다. 그는 현재 세계를 지배하는 화폐경제 시스템의 부작용을 해결하고 화폐의 고유한 의미를 되살린다는 의미에서 신성한 경제(sacred economy)를 제안했는데, 신성한 경제의 핵심이 바로 선물경제다. 그가 『신성한 경제학의 시대』에서 제안한 선물경제의 정착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역이자 화폐

- 지급준비금에 대한 역이자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줄어드는 현금통화는 모든 구조적 모순의 원천인 '이자의 효과'를 반전시킨다.

→ 이를 통해 성장 없는 번영이 가능해지고, 부의 공정한 분배가 구조적으로 이루어지고, 미래 현금흐름의 할인이 사라져 더 이상 단기 수익에 미래를 저당 잡히지 않아도 된다. 뿐만 아니라 세상 만물이 소멸을 거쳐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진리를 구현한다.

※ 저자도 지적했듯이, 사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많은 국가에서 거의 제로 수준의 이자율이 적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마이너스이자율을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거나 아주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사실 가격으로서 이자율에는 아무런 선행적 제약이 없고, 오직 시장의 여건을 반영해 변할 뿐이다. 그렇다면 마이너스 이자율, 즉 역이자도 이론상 가능하다. 특히 사람들이 현재보다 미래를 더 중시하는 경우(음의 시간선호)라면 역이자는 시장원리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다.

2) 경제적 지대의 제거, 공유자원 고갈에 대한 배상

● 사람들이 생산적인 일, 사회에 기여하는 일은 하지 않고 단지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만으로 이득을 볼 수 있다면, 부의 양극화는 불가피하다. 토지, 전자기스펙트럼, 채굴권, 매장 석유, 특허권 등 수많은 형태의 재산을 소유한 사람들이 경제적 지대로 알려진 그런 이득을 보고 있다.

※ 현실적으로 경제적 지대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어디까지 용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특허권이다. 이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으므로 특허권의 기간이나 범위를 적절히 통제할 필요는 있다.

● 헨리 조지(Henry George)의 토지가치세와 같은 조치, 채굴권의 임대, 경제적 지대의 대상을 화폐 기반으로 사용하는 방안 등 경제적 지대를 사람들에게 되돌려, 재산을 단지 소유함으로써가 아니라 잘 사용함으로써만 사적인 이익을 얻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공유자원에서 비롯된 것은 무엇이든 요금이나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

※ 기존에 경제적 지대를 누리던 사람들로부터 이를 회수하려면 거의 혁명적인 조치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저자는 이것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닌 것처럼 말한다. 실제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았던 난제가 등장할 수 있다. 저자와 같이 신성한 경제의 블루 프린트를 완벽하게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하이에크(Friedrich v. Hayek)가 지적한 '치명적 자만(fatal conceit)'의 한 유형일 수도 있다.

3) 사회·환경 비용의 내부화

● 배출권 거래제도는 이산화황의 경우 산성비 감소에 효과적이었지만, 이산화탄소의 경우 배출 감소에 별 효과가 없었다. 따라서 각각의 오염물질, 각각의 자연자원에 대해, 지구와 해당 생태 지역이 수용할 수 있는 총 배출 한도와 사용 한도를 정해야 한다. 그러나 더 나은 방법은 지구의 선물, 즉 폐기물을 흡수·전환하는 지구의 수용능력과 자원을 화폐 기반으로 하는 화폐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 공유자원을 기반으로 화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자의 설명으로는 충분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좀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화폐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은 결코 간단한 작업이 아니다. 그 이유는 기득권 계층의 반발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초래할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4) 경제, 통화의 지역화

● 세계적인 단일문화 속에 익명으로 표류하기보다 사람들과 결속되고 공간과 결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산 및 거래가 지역화되면, 우리의 행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더 분명해져서 우리의 타고난 공감능력을 강화시킨다.

※ 지역화의 이상은 바람직한 면이 있지만 기존의 '세계화'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의문이다. 김용호도 『제3의 눈』에서 세계화에 대한 대안으로 '세방화(glocalization)'라는 아이디어에 공감을 표시한 바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역화와 대동소이해 보인다.

5) 사회배당금

● 지금의 경제시스템은 이미 우리 것인 공동의 부를 얻기 위해 일하도록 강요한다. 이런 부당함을 바로잡으려면, 경제적 지대에 대한 배상, 환경오염에 대한 과세 등으로 얻는 수익을 모든 시민들에게

사회배당금으로 지급하면 된다. 사회배당금은 부의 집중을 완화하고 디플레이션 위기를 예방하는 역할도 한다.

※ 알래스카 주에서는 이미 사회배당금이 시행되고 있다. 주민들은 주의 석유수익을 공유하고 매년 몇 천 달러씩 지급받는다. 최근에 지급된 경기부양 수표도 사회배당금의 또 다른 전조다.

6) 경제 역성장

- 이제는 소비를 늘리는 선택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무위험 이자를 추구하는 동력이 사라지면, 경제성장이 있어야 자본의 흐름이 촉진되는 시대도 끝나고, 역성장 경제가 실현 가능해진다.
- 역성장 경제로의 전환은 이미 시작되었다. 오늘날 실업은 악으로 여겨지지만, 사회배당금이 지원되고 경제 전체가 분담한다면 그런 인식도 달라질 것이다. 소멸화폐, 자원 기반의 경제, 사회배당금, 이 모두가 역성장 경제를 뒷받침한다.
- 소비가 줄어드는 대신 더 많이 나눠 쓰고, 임대가 줄어드는 대신 더 많이 빌려주며, 판매가 줄어드는 대신 더 많이 베풀게 될 것이다. 이 모두가 역성장 경제의 반영이자, 역성장 경제를 앞당기는 길이다.

7) 선물문화와 P2P 경제

- 화폐 영역의 확대는 다른 형태의 경제순환, 그중에서도 특히 선물의 순환을 희생시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대사회에서 공동체가 위축되면서 소외, 고독, 심리적 고통을 가져오는 주된 이유다.
- 다행히도 화폐영역은 이미 위축되기 시작했고 역성장으로 선물경제가 확대될 여지도 커지고 있다. 인터넷은 중요한 측면에서 선물의 네트워크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때 높은 비용으로 생산되던 정보를 공짜로 제공하고 있다.

→ 지금까지 설명한 일곱 가지 요소 모두가 서로 밀접한 관계 속에서 상승효과를 낸다. 이 모두를 아우르는 핵심은 성장의 종말이며, 지구와 새로운 관계를 향한 인류의 전환이며, 새로운 '사람들이야기'다.

2.2 선물경제 부활의 배경과 전망

★ 선물경제 부활의 배경

- 선물경제라는 오래된 아이디어가 다시 관심을 끄는 이유는 화폐에 기반을 둔 금융자본주의의 병폐가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새로운 경제 시스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의식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 사람들은 더 이상 분리된 존재로 남아있기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태동하고 있다. 데카르트 이후

오랫동안 사람들을 지배해 온 분리된 자아라는 생각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 이와 관련해 아이젠스타인의 다음과 같은 진술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유대관계의 감소는 부(富)의 감소보다 더 심각한 문제다. 바로 우리 존재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동체와 자연으로부터 단절될 때 우리가 느끼는 빈곤함은 바로 우리 영혼의 빈곤함이다. 경제학, 생물학, 정치철학, 심리학, 제도종교에서 가정하는 것과는 반대로, 우리는 본래부터 분리된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 인터넷의 발달로 자연스럽게 선물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공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음악 파일과 동영상 등은 선물경제의 대표적인 사례다.

★ 선물경제의 향후 전망

- 선물은 고대사회에서는 보편적인 관습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는 나름대로 정교한 방법을 발달시켰다.

※이에 대해 이 분야의 선구자인 사회학자 마르셀 모스(Marcel Mauss)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반적으로 선물은 사회적 인정과 오명, 지위와 배척, 그 밖의 사회적 압력들에 의해 정확히 책정되고 이행되었다. 이런 상태가 바람직한 것은, 선물로 인해 생기는 의무감과 보답에 대한 기대가 사회를 하나로 잇는 접착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 오늘날 고대사회에 적용되던 선물의 개념을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지만 인터넷이라는 현대적인 수단에 적합한 새로운 선물의 영역을 무한정 확대할 수 있다. 인터넷은 분리의 시대를 끝내고 연결의 시대를 알리는 기술적 메신저였다.

※ 이와 관련해 아이젠스타인의 다음과 같은 진술은 흥미할 만하다: "그러나 분리의 시대는 끝나가고, 우리는 상호연결성의 진리대로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지금까지의 모든 제안은 우리의 의식 전환을 가정하고 쓴 것이다. 의식의 전환 없이 신성한 경제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 지금 나는 의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환을 지켜보고 있으며, 전환에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공유경제는 선물경제를 품고 있는 기반이다. 따라서 공유경제가 확산된다는 것은 곧 선물경제가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공유경제의 핵심 조직인 협동조합은 선물경제를 실현하는 공동체로서의 특성을 동시에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사항: "신성한 경제"에 관한 찰스 아이젠스타인의 주요 메시지>

다음은 찰스 아이젠스타인의 『신성한 경제학의 시대』에서 발췌한 구절들이다. 선물경제의 철학적 바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이 인용한 것이니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이다.

- 현대의 자아는 타자인 우주 속에서 서로 분리된 주체로서 존재한다. 애덤 스미스가 말하는 '경제적 인간', 종교에서 말하는 '육화된 영혼', 생물학에서 말하는 '이기적 유전자' 와 같다. 오늘날의 각종 위기들은 모두 이 분리라는 주제의 변형들-자연과의 분리, 공동체와의 분리, 잃어버린 우리 자신의 일부와의 분리-이다. 우리의 자의식에 따르면 '내 이익은 곧 상대방의 손해'이며, 우리는 그런 원리를 구현하는 이자 기반의 화폐시스템을 갖게 되었다.(73쪽)

● 신용 기반의 화폐는 현재의 상품과 미래의 상품을 교환하는 것이다. 이는 지금 받고 나중에 준다는 선물의 원리와 모순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이자에서 비롯된다. 이자를 낳는 빚은 언제나 새로운 돈을 수반하기에, 빚의 총액은 언제나 현존하는 돈의 총액을 넘어선다. 돈의 부족은 우리를 서로 경쟁하게 만들고, 끊임없는 구조적 결핍에 시달리게 한다.(127쪽)

● 지금의 화폐시스템은 '분리' 라는 토대 위에 서 있다. 즉, 우리가 타자인 우주 속에서 서로 분리된 주체로 존재한다는 인식의 원인이자 결과다. 그런 정체성을 버리고 서로 연결된 진정한 존재의 필요로움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풍요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일도 가능할 것이다.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은 고리대금 따위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148쪽)

● 개인적 차원에서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가장 큰 혁명은 자아의식과 정체성의 혁명이다. 데카르트와 애덤 스미스의 분리된 자아는 이제 수명을 다해가고 있다. 우리는 서로 분리될 수 없고 모든 생명과 분리될 수 없음을 깨달아가고 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선물의 정신으로 구현할 때가 되었다.(164쪽)

● 돈과 존재의 깊은 관계가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어떤 종류의 돈이 새로운 자아, 연결된 자아, 상대방의 이익이 곧 나의 이익이라는 상호연결성의 진리가 실현될 세계에 어울릴까? 이자의 결정적인 역할을 고려할 때, 첫 번째 대안으로는 구조적으로 이자가 제거되거나 이자의 반대 개념이 작동하는 화폐시스템을 생각할 수 있다. 이자의 반대 개념은 뱅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화폐일 것이다. 다시 말해 체선료(滯船料)라고 알려진 역이자율(negative interest rate)을 적용 받는, 소멸하는 화폐(decaying money)일 것이다.(233쪽)

● 지금 또다시 비슷한 위기를 맞이한 우리는 중앙집권적 통제를 강화해주기 위해 낡은 세계를 잠시 떠날 것인가, 통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를 맞이할 것인가 하는 비슷한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 자유화폐 제도가 경제, 사회, 심리, 영적 차원을 아우르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돈은 우리 문명을 결정짓는 너무나도 근본적인 요소이기에, 돈의 근본적인 전환 없이 진정한 문명의 전환을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일이다.(241쪽)

● 화폐에 스탬프를 첨부한다는 생각이 구식으로 여겨지면서, 최근 몇몇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현대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화폐가 전자화폐이므로, 일종의 유동성 세금을 부과하거나 연방준비은행에 예치된 지급준비금에 역이자를 적용하는 방안이 있다. 후자는 현재 시티은행의 수석 경제분석가인 윌렌 뷰이터(willen Buiter)가 경제학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03년 <이코노믹 저널>과 2009년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제안한 것으로,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 그레그 맨큐(Greg Mankiw)와 미국 경제학회 회장 로버트 홀(Robert Hall)도 거론했고 심지어 연방준비은행 소속 경제학자들도 논의한 바 있다.(244쪽)

● 돈에 대한 우리의 반감은 과거의 돈에 관한 것이지, 미래의 돈에 관한 것이 아니다. 생태적 경제 속에서 신성한 것들을 기반으로 하는 역이자 화폐는 고리대금 시대의 제도를 완전히 뒤집고 인간 경험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명적인 것이다. 외면부터 내면까지, 경제에서부터 정신까지 모든 수준을 아우르는 변혁이다.(258쪽)

● 많은 이들이 역성장을 말하면 기겁한다. 역성장이라고 하면, 사회가 더 가난해지고, 공익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 규모가 줄어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성장으로 부가 감소하는

일도, 상품과 서비스의 이용기회가 감소하는 일도 없다. 상품과 서비스가 다른 비화폐적 메커니즘을 통해 제공된다면, 실제 경제가 더 풍요로워진다고 해도 통계상의 경제는 후퇴할 수 있다.(285쪽)

● 신성한 경제로의 진화는 전반적인 문명의 전환과 함께 이루어진다. 의약, 교육, 농업, 정부, 과학 등 우리 문화의 모든 제도에서 유사한 변화들이 진행되고 있다. 각 분야의 변화는 나머지 분야의 변화를 촉진한다. 자연의학으로의 전환이 가져온 경제적 효과도 마찬가지다.(287쪽)

● 이렇게 점점 싸지는 '정보 경제' 서비스들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생산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역성장의 추세도 점점 확산된다. 심지어 성장산업으로 알려진 분야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프린터, 데이터 저장장치 등을 포함한 PC 하드웨어 지출비용은 2000년 3,710억 달러에서 2009년 3,260억 달러로 감소했다. 컴퓨터 구매가 감소한 것이 아니라 비용이 극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점은 분명하다.(290쪽)

● 그러나 분리의 시대는 끝나가고, 우리는 상호연결성의 진리대로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지금까지의 모든 제안은 우리의 의식 전환을 가정하고 쓴 것이다. 의식의 전환 없이 신성한 경제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 지금 나는 의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환을 지켜보고 있으며, 전환에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357쪽)

● 정신과 물질의 분리가 치유됨에 따라, 우리는 경제와 영성이 불가분의 관계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개인 차원에서 경제란 우리가 가진 선물을 어떻게 베풀고 필요를 어떻게 채우느냐의 문제이며, 세계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문제다.(377쪽)

● 마르셀 모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선물은 사회적 인정과 오명, 지위와 배척, 그 밖의 사회적 압력들에 의해 정확히 책정되고 이행되었다. 이런 상태가 바람직한 것은, 선물로 인해 생기는 의무감과 보답에 대한 기대가 사회를 하나로 잇는 접착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382쪽)

● '신성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만한 경제에서 일은 누군가의 시간이나 삶을 희생시키는 것도 아니고, 피해나 고통을 주는 것도 아니다. 신성한 경제는 인간이 일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 선물의 표출에 에너지를 쏟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경제이다. 여기에 '보상'이라는 말은 쓰일 여지가 없다.(434쪽)

● 물론 인터넷에서는 선물경제가 거대한 규모로 번창하고 있다. 모든 주요 생산성 소프트웨어 버전들은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예컨대 수백 명의 프로그래머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만든 사무용 소프트웨어 오픈 오피스(Open Office)도 무료로 쓸 수 있다. 온라인에서 '공짜로' 음악을 제공하는 밴드들도 많다. 음반 분야의 선물 비즈니스 모델을 개척한 가장 주목할 만한 밴드는 라디오헤드(Radiohead)로, 그들은 2007년 앨범 'In the Rainbow'를 '원하는 만큼 지불하는' 방식으로 제공했다.(440쪽)

● 기하급수적 성장에 의존하는 화폐시스템은 결국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으며, 지구와 동반자 관계인 연결된 자아를 향해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신성한 경제의 필수 요소들이 이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474쪽)

<주요 참고 문헌>

* 김현대 외, **협동조합, 참 좋다**, 푸른지식(2012)

- * 마르셀 모스, **증여론**, 한길그레이트북스(2002)
- * 스테파노 자마니,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 북돋움(2012)
- * 요차이 벤클러, **펭귄과 리바이어던**, 반비(2013)
- * 제러미 리프킨, **한계비용 제로 사회**, 민음사(2014)
- * 차두원 외, **초연결시대, 공유경제와 사물인터넷의 미래**, 한스미디어(2015)
- * 찰스 아이젠스타인, **신성한 경제학의 시대**, 김영사(2015)
- * 톰 하트만, **2016년 미국 몰락**, 21세기북스(2014)